

# “이상적으로 일하는 곳, 곡성”...워케이션 사업 박차

### ‘워크 빌리지 in 곡성’ 시범 운영 후 110개 기업 참여 하반기엔 ‘포레스트 캠프’ 예정...생활인구 유입 확대

곡성군이 곡성형 워케이션 사업인 ‘워크 빌리지 in 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군 심청한 옥마을의 워케이션(work + vacation) 사업은 워케이션 이상의 개념을 기업에 제공한다.

생활 인구 확대와 기업 정주의 새로운 문화 형성을 위해 워크 빌리지라는 개념을 창출했다. 기존의 휴양이나 관광 중심의 워케이션과 차별화하는 것으로, 잠시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몰입도 높은 업무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한 이후 현재까지 약 110개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6-9월 3개월 동안 운영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42개 기업이 이용했고 187명이 참여했으며 98%의 참가자들이 재방문을 희망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에는 현대아산나눔재단이 지원하는 스타트업과 비영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27일부터 본격적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 6월 기준으로 23개 기업의 임직원 약 140여명이 심청한옥마을을 방문해 곡성군만의 워케이션을 경험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개발자·디자이너·기획자 등 전문 직무군을 대상으로 포레스트 캠프가 진행될 예정이다. 포레스트 캠프는 곡성에서 생활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을 알아가는 프로그램

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6-9월 3개월 동안 운영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42개 기업이 이용했고 187명이 참여했으며 98%의 참가자들이 재방문을 희망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에는 현대아산나눔재단이 지원하는 스타트업과 비영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27일부터 본격적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 6월 기준으로 23개 기업의 임직원 약 140여명이 심청한옥마을을 방문해 곡성군만의 워케이션을 경험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개발자·디자이너·기획자 등 전문 직무군을 대상으로 포레스트 캠프가 진행될 예정이다. 포레스트 캠프는 곡성에서 생활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을 알아가는 프로그램



곡성군이 생활인구 확대와 기업 정주의 새로운 문화 형성을 위해 ‘워크 빌리지’ 개념을 창출한 가운데 워케이션 사업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곡성군 제공>

으로 6월 말부터 시작해 총 6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워케이션 사업 확대를 위해 지

난 5월 행정안전부 고령올래 공모사업인 ‘워케이션 분야’에 응모했으며 현재 서면심사를 통과하고 이달 말 현장심사

를 앞두고 있다.

공모에 선정되면 심청한옥마을 내 휴식시설들은 보수와 리모델링을 거쳐 더

큰 규모로 확장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의 직원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게 돼 군은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기면 괴소리 일원의 옛 삼기중학교 부지에는 러스틱다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가족레저형 농촌유희 및 워케이션 청년 거주 시설을 조성하며 ‘지역형 거주지 자율근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기간 머무르는 형태를 벗어나 장기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워케이션을 통한 관계기업 형성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상적으로 일하는 곳, 곡성”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선점해 워케이션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곡성=이호산 기자

## 장흥, 미식관광 활성화로 500만 관광객 유치 ‘목표’

### TF 구성·첫 회의...토요시장 먹거리 골목·한식 체험관 등 논의

장흥군이 미식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 500만명 달성을 추진한다.

장흥군은 19일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미식관광 관련 업무별 사업 추

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9개 부서로 구성됐다.

최근 관광지 선택의 주요 요소로 ‘미식’, ‘식도락’, ‘맛집’ 등의 키워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회의에서는 토요시장 먹거리 특화

골목 조성, 한식 체험관 조성, 장흥 한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장흥 맛집 육성, 장흥 특화 표고빵 개발 등의 의견들이 논의됐다.

군은 맛 칼럼니스트, 유명 셰프, 여행작가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미식관광 콘텐츠도 개발한다.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지역, 계절, 테

마, 타겟별 미식 투어 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 군수는 “최근 미식관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며 “지역 특산물 등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 담양군, 내달 정기인사 맞춰 조직개편 추진

### 이병노 군수 “역점사업 효율적 추진·전문성 강화” 투자경제과→경제교통과·투자유치단으로 개편

담양군이 최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조직 운영의 유연성 및 효율성 도모를 골자로 한 행정기구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19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안은 업무 폭주로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는 ‘투자경제과’를 ‘경제교통과’와

‘투자유치단’으로 개편해 업무 집중도를 최고로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한 ‘가족행복과’가 ‘향촌복지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을 비롯해 보건소 ‘보건정책과’가 ‘보건행정과’로 이름이 바뀐다.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는 ‘농촌

지원과’, ‘미래농업연구과’는 ‘기술보급과’로 각각 변경된다.

특히 미래농업의 중요성을 심분 고려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보좌할 미래농업연구단을 두기로 하는 등 이병노 군수는 군민과 약속한 공약 실천의 확고한 추진 의지와 함께 이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뜻을 대외에 공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이 군수 공약사항 이행과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 정비 차원으로, 신속한 처리는 물론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행정 서비스 질을 제고하겠다는 강력한 의

지가 반영됐다.

이같은 기구 개편에 따라 3국 2실 16과에서 3국 2실 16과 1단으로 변경되며 5급 사무관 47개가 새롭게 생길 반면 6급 이하는 47개가 줄어든다.

군은 7월 예정된 정기인사에 맞춰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조직 개편은 주민들의 행정 수요 변화를 면밀하게 살피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했다”며 “군민들과 약속한 주요 사업의 실현과 미래상 구현 등 더 큰 도약의지를 조직 개편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오천 워터아일랜드가 최근 오천그린광장에 개장했다. 워터아일랜드는 초대형 워터 슬라이드와 그늘막 쉼터, 샤워실 등이 갖춰진 물놀이 콘텐츠로 오는 8월15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순천시 제공>

## “오천 워터아일랜드로 물놀이 오세요~”

### 순천국제정원박람회장, 8월15일까지 ‘무료 물놀이장’ 운영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19일 “오천 워터아일랜드를 개장했다”고 밝혔다.

워터아일랜드는 오천그린광장 내 연면적 1만㎡ 규모로 조성됐으며, 초대형 워터 슬라이드와 에어풀장, 그늘막 쉼터, 샤워실 등이 갖춰진 여름 맞춤형 물

놀이 콘텐츠다.

워터아일랜드는 8월15일까지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물놀이장 시설점검 및 수질관리 등을

위해 휴장한다.

노관규 시장은 “때 이른 무더위로 당초 7월 초 개장하려고 준비했던 워터아일랜드를 아이들을 위해 일찍 선보이게 됐다”며 “지역 안정화와 그늘막 확대 설치로 시민들과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워터아일랜드 개장 소식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오천그린광장에 조성된 음악 분수와 어린이놀이터에 더해 물놀이장까지 갖춰지니 여름에 더욱 자

주 찾게 될 것 같다”, “대형 물놀이장이 바로 집 앞에서 즐길 수 있어 아이들에게 더욱 친숙한 곳”이라며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한편 조직위는 이번 여름을 맞아 ‘가든강스’라는 주제로 여름에 즐기는 한겨울 ‘빙하정원’,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칠 수 있는 ‘개울길광장’, 강을 가로지르며 정원을 만끽하는 ‘정원드림호’, 정원 곳곳에 펼쳐진 분수와 개울로 시원한 정원을 선사하고자 한다.

/순천=정기기자

## 구례, 찾아가는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

### 22개 마을 지정...웃음치료·요가·노래교실 등

구례군이 찾아가는 평생학습 마을학교를 운영한다.

19일 구례군에 따르면 평생학습 마을학교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 스스로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한 마을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현재 22개 마을이 지정돼 마산면 냉천마을과 하사마을, 산동면 정산마을에서 운영되고 있고 다른 마을에서도 이달 중 시작될 예정이다.

웃음치료, 요가, 노래교실, 도자기, 목공예 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멀리 가지 않고도 마을 내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주민들의 참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러한 문화·여가프로그램만 아니라 가정 형편이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못한 마을 어르신 및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다음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구례=임종길 기자



## 여수해수청,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시행

### 민원인 수요 반영...2주 앞당겨 내달 4일 실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19일 “다음달 4일 ‘2023년도 제4회 정기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도입된 제도로 신청인의 항로 특성 숙지 여부, 비상상황 대응 능력 보유 여부 등을 검증하며 합격자만 여객선 선장으로 승선할 수 있다.

여객선은 여객 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이번 적성심사는 당초 다음달 18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도서민이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여객선과 하계 휴가철을 대비하는 유도선 등에서 많은

은 건의가 있어 적극행정 일환으로 2주 앞당긴 7월4일 실시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며 여수해수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증명사진을 붙여 여수해수청 1층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장의 직무 수행 능력·위기 대처 능력을 철저히 확인하고 적성심사의 실효성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내부 대비 외부 심사위원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 장성군, 벼 흰잎마름병 예방 ‘총력’

### 사전예방교육·약제 공급 내달부터 방제 본격 시작

장성군은 “장마철을 대비해 최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육장 대회실에서 벼 흰잎마름병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벼 흰잎마름병은 물을 통해 전염되는 세균병으로 이름 그대로 벼 잎에 흰 무늬가 생기면서 작물이 점점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또한 한 번 발생하면 삼삼 발생지 중심으로 다년 간 감염되는 경향이 있어 예방 위주 방제가 필수적이다.

군은 우기를 앞두고 본격적인 병해충 방제와 물 관리 기술 교육을 진행해 농가 방제 역량 향상에 나선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벼 중저소독·육묘 관리법을 집중 교육했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초 실시한 벼 흰잎마름병 삼삼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 흰잎마름병의 경우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운 만큼 선제적 방제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